

2021년 1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부양책 기대 및 반발 매수세 유입

펠로시 하원의장, 다음주 1.9 조 달러 부양책 하원 통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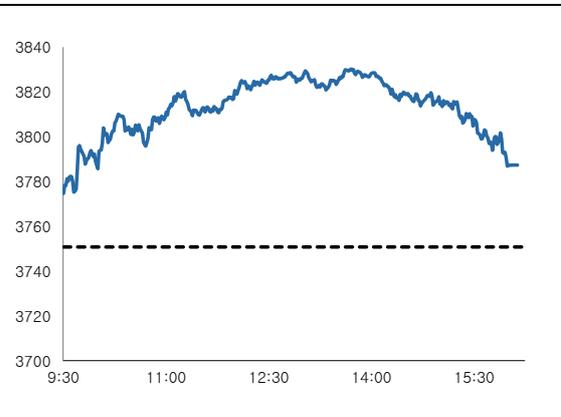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반발 매수, 추가 부양책, 백신 기대

미 증시는 최근 하락으로 다우와 S&P500 이 전년 대비 하락 전환하자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투기적 거래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등 안정을 찾은 점도 긍정적. 특히 대형 기술주는 물론 금융, 레저, 산업재 등이 상승 주도. 이는 펠로시 발언에 의한 추가 부양책 기대 및 CDC 발표에 따른 백신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장 후반 변동성 확대 우려로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99%, 나스닥 +0.50%, S&P500 +0.98%, 러셀 2000 -0.10%)

투기적 거래 관련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이 여전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주식시장 또한 안정을 찾는 모습. 더불어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주에 공화당의 지원 유무에 관계 없이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 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 이는 하원 통과 후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버니 샌더스 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해 상원 통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물론 민주당 조 만친 상원의원 등의 반대로 곧바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 의원들과의 협상을 다음주 본격화 한다고 주장 했었음.

더불어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가 승인된 화이자(+0.39%)와 모더나(+1.16%) 코로나 백신을 2 천만회 이상 투여했는데 임상 시험과 마찬가지로 안전해 보인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요인. 시장 일각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오자 백신 위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인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47%는 백신 접종을 맞았거나 조기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고 기다릴 것이라는 비중이 39%에서 31%로 감소하는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 여기에 다음주 존슨 앤 존슨(+0.15%)의 백신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1 회 주사 및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라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음. 이는 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 경제 정상화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 지고 있기 때문. 이 결과 레저, 산업재 등이 강세를 보인 점도 오늘 시장의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3,069.05	-1.71	홍콩항셱	28,550.77	-2.55
KOSDAQ	961.23	-2.50	영국	6,526.15	-0.63
DOW	30,603.36	+0.99	독일	13,665.93	+0.33
NASDAQ	13,337.16	+0.50	프랑스	5,510.52	+0.93
S&P 500	3,787.38	+0.98	스페인	7,932.50	+1.02
상하이종합	3,505.18	-1.91	그리스	754.25	+1.45
일본	28,197.42	-1.53	이탈리아	21,916.50	+1.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레저, 항공, 금융, 산업재 강세 Vs. 투기 관련 종목 급락

GM(+3.45%)은 2035년까지 무공해 모델만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2040년까지 글로벌 모든 차량을 친환경화 할 것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공격적인 전기차 투자 등을 이야기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백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디즈니(+5.43%), 부킹닷컴(+7.85%), 카니발(+4.00%), 메리어트(+2.76%) 등 레저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 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9.30%)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백신 기대가 유입되며 보잉(+1.65%), 델타 항공(+4.05%) 등과 동반 상승을 보였다. 여기에 추가 부양책 기대로 캐터필라(+2.05%) 등 산업재, JP모건(+1.76%) 등 금융주 또한 상승했다.

게임스탑(-44.29%)은 장중 39% 상승하기도 했으나 여러 온라인 증권사들이 거래 중단을 발표하자 한 때 68% 급락하기도 했었고, AMC(-56.63%)도 변동성이 극대화 되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 했다. 더불어 화두가 되었던 배드배스엔 비온드(-36.40%)는 물론 아이로봇(-24.30%)과 함께 음식료 업체 켈벨 수프(-7.51%)와 애완동물 식품 업체 JM스머커(-7.75%)는 물론 IT 업종 중 최근 급등 해 공매도 손실율이 컸던 3D시스템(-10.04%), 블랙베리(-41.63%)도 동반 하락 했다.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음에도 가이던스 발표가 없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애플(-3.50%), 테슬라(-3.32%), 페이스북(-2.62%) 등도 하락 했다. 특히 테슬라는 JMP증권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 하자 장중 한 때 7%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3%	대형 가치주 ETF(IVE)	+1.21%
에너지섹터 ETF(OIH)	+1.81%	중형 가치주 ETF(IWS)	+1.00%
소매업체 ETF(XRT)	-9.05%	소형 가치주 ETF(IWN)	-0.61%
금융섹터 ETF(XLF)	+1.86%	대형 성장주 ETF(VUG)	+0.61%
기술섹터 ETF(XLK)	+0.41%	중형 성장주 ETF(IWP)	+1.6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40%	소형 성장주 ETF(IWO)	+0.00%
인터넷업체 ETF(FDN)	+1.28%	배당주 ETF(DVY)	+0.26%
리츠업체 ETF(XLRE)	+0.2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0%
주택건설업체 ETF(XHB)	-0.0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5%
바이오섹터 ETF(IBB)	+0.35%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1.46%	하이일드 ETF(JNK)	+0.27%
곡물 ETF(DBA)	-0.79%	물가연동채 ETF(TIP)	+0.20%
반도체 ETF(SMH)	+2.09%	Long/short ETF(BTAL)	-2.5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06.92	+1.22%	-3.82%	+8.10%
소재	453.71	+1.82%	-3.55%	+1.30%
산업재	732.34	+1.51%	-2.63%	-1.05%
경기소비재	1,335.37	+0.39%	-2.71%	+2.81%
필수소비재	672.95	+0.47%	+0.19%	-2.70%
헬스케어	1,352.11	+1.48%	-1.65%	+3.29%
금융	490.90	+1.92%	-3.32%	+1.82%
IT	2,324.90	+0.45%	-0.92%	+1.75%
커뮤니케이션	222.78	+1.25%	-1.37%	+0.61%
유틸리티	317.77	+1.21%	-0.43%	+1.65%
부동산	231.34	+0.32%	+1.19%	+3.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인민은행의 행보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0%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2.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8 원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 여파 및 중국 인민은행의 지속적인 유동성 흡수 등으로 부진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특징처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는 올해 들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주식 비중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미 증시가 지난 4 분기 이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인 추가 부양책 기대와 백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오늘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증시 마감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을 확대 하기 보다는 상승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최근 3 일 연속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인민은행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 흡수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높은 레버리지 수준 등을 감안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 가능성이 높기에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긴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인민은행 또한 긴축을 서둘러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가 없다면 전일의 하락을 뒤로 하고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으나 유동성 회수가 오늘도 진행 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 될 수 있어 관련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4 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4.0%로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했다. 개인 소비지출이 2.5%에 그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지출 또한 1.2% 감소한 점도 영향을 줬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 91.4 만건이나 예상치인 87.5 만건 보다 감소한 84.7 만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85 만 1,750 건 보다 증가한 86 만 8 천건을 기록했다.

12 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82.9 만건) 보다는 증가한 84.2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87.1 만건)을 하회했다. 판매 평균 가격은 34 만 3,900 달러에서 35 만 5,900 달러로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Vs. 국제 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백신 접종 지연 및 중국 정부가 춘절을 앞두고 여행 자제 조치를 발표하자 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가격 레벨 상승에 따른 세일 오일 기업들의 산유량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강세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주가 지수가 반등 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다만, 월말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는 달러화의 약세를 제한 했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5%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은 브라질 헤알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남아공 란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이었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며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주 추가 부양책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인 2.46 배를 하회한 2.30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크지 않았던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부양책 기대가 높아졌으나 달러 강세 여파로 0.4%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부양책 기대 속 혼조 마감 했다. 대두 등 곡물시장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3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34	-0.96	-1.49	Dollar Index	90.519	-0.14	+0.43
브렌트유	55.53	-0.50	-1.02	EUR/USD	1.212	+0.07	-0.36
금	1,841.20	-0.42	-1.50	USD/JPY	104.24	+0.12	+0.71
은	25.922	+2.10	+0.26	GBP/USD	1.3729	+0.31	-0.03
알루미늄	1,984.50	-0.38	-0.65	USD/CHF	0.8885	-0.03	+0.36
전기동	7,873.00	+0.61	-1.85	AUD/USD	0.7684	+0.27	-1.03
아연	2,575.00	-0.33	-4.95	USD/CAD	1.2811	+0.09	+1.38
옥수수	534.50	+0.09	+1.96	USD/BRL	5.4406	+0.54	+1.51
밀	647.00	-1.71	-2.08	USD/CNH	6.4732	-0.35	+0.12
대두	1,353.25	-1.56	-1.24	USD/KRW	1119.60	+1.38	+1.95
커피	124.00	-1.20	-1.94	USD/KRW NDF1M	1112.74	+0.39	+1.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047	+3.05	-5.92	스페인	0.071	-0.20	-5.40
한국	1.765	+0.30	+6.30	포르투갈	0.015	-0.40	-5.90
일본	0.040	-0.90	-0.30	그리스	0.676	+0.40	+2.60
독일	-0.539	+0.70	-4.30	이탈리아	0.635	-1.90	-5.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